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일반위탁부모의 위탁의사:

'H위탁보호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Decisions by Foster Parents to car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 The Case of 'H' Foster Agency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 사 김 봉 선*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정 희 영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Lecturer : Kim, Bong-Sun

Department of Soci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Course : Jung, Hee-Young

<Abstract>

It is generally known that foster children often have special needs such as disability and psycho-behavioral problems. It is also known that foster parents will provide better care with those children when they are coping well with foste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perceptions foster parents have and what factors affect their decisions to car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Literature review reveals that successful foster parent care is related to the foster parents' motivation, role perception, and social support systems. Foster parents' motivation is related to "altruism toward foster child", "the egocentrism of the foster parent", "previous experience with adoption" and "the past experiences of the foster parent". Role perceptions of the foster parent consist of "supporting the internal system of the foster child" and "supporting the external system of the foster child". The social support system is characterized as the limited notions of a family oriented concept. In addition, a foster parent's decision to look after special-needs children is related to their motivation while the decision to foster disabled children is related to the levels of available social support systems as well as motiv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es that the motivation level and that of social support system are closely related to different aspects of the special-needs foster child; this factor should also be considered when recruiting foster parents or placing special needs children.

△주요어(Key Words) : 위탁보호(foster care), 위탁부모(foster parents), 동기(motivations), 특수욕구(special needs)

I. 서 론

최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까지 규정되고 있는 데 반해, 한 가지 흥미로운 인구학적 변화는 지난 20년간

전체 인구대비 아동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동인구 중에서 요보호 아동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알려진 바와 같이 요보호 아동의 증가 문제는 부모의 경제문제, 이혼, 가정불화 등과 같은 사회 병리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공공복지의 개입대상

* 주 저 자 : 김봉선 (E-mail : sunnykim75@skku.edu)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수준은 1991년 국가가 '아동권리에 관한 UN헌장'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아동보호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아동들이 '소년소녀가장'으로 남아 있거나 '시설보호' 상태에 있는 등 국가로부터 적절한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2003년 3월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가정위탁보호 체계를 아동보호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비교적 장기간 양육될 수 없을 때 계획된 기간 동안 대리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위탁보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적절한 위탁보호의 형태는 무엇이며(한국복지재단, 2003; 김정우, 2006a), 아동의 적응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양심영, 2003; Berrick, J. & Barth, R., 1994; Iglehart, A., 1994) 등 다양한 쟁점들이 있지만, 아동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기능하는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시설보호보다는 위탁보호가 더 적절하다는 것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는 것이다(Greef, R., 1999).

이처럼 요보호아동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위탁보호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탁보호에 참여하는 4주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김정우, 2006b). 실제로 위탁보호에는 친부모, 위탁아동, 위탁부모, 위탁전문 기관이 모두 관여되며 이 중 어느 한 체계가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할 경우 성공적인 위탁보호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4주체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연구들도 주로 위탁아동(양심영, 2003; 장윤영·박태영, 2006)과 제도(양심영, 2004; 허남순, 2004; 전재일·박영준, 2002; 이송이, 1999; 이기정, 1999)에만 집중되어 있어 위탁부모나 위탁기관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된다고 하겠다.

위탁보호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관련 주체들 중에서도 위탁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성공적인 위탁 배치에는 위탁부모와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외에도 위탁부모의 동기, 아동에 대한 수용성 정도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Girgis, J., 1999), 이와는 반대로 위탁보호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위탁부모가 아동의 행동과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Timmer, S. G., 2005). 이 때문에 지금까지 위탁부모와 관련된 초점은 주로 이들의 모집과 유지에 맞추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 위탁부모와 관련하여 Cox 등(2002)은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경우 1998년 당시 위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133,500 가정 가운데 실제로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는 35%에 불과하였으며, 심지어 전체의 1/3정도는 전혀 위탁경험이 없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이는 대부분의 위탁아동들이 정서·행동적 문제나 직접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위탁과 관련하여 특수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위탁부모들이 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후 이들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위탁부모들을 모집한다는 것은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거나 문제성 행동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위탁할 의사가 있는 가정을 찾는 것이며 어떤 위탁부모들이 이 같은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위탁부모가 위탁보호의 성공에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이들의 위탁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위탁부모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역할인식에 대한 연구가 탐색적으로 이루어졌으며(김정우, 2006 a, b) 양심영(2003)에 의해서는 이들이 갖추고 있는 물리적 환경특성과 아동의 적응간의 관련성이 연구되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반 위탁부모들을 대상으로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위탁의사를 알아볼 것이며, 향후 위탁부모 모집 및 활성화와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위탁부모들의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통계청의 추계인구자료(future population projection)에 의하면 전체인구 대비 아동인구 비율은 1980년 40.7%(15,219,000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31.7%(13,752,000명)로 약 9%가량 감소한데 이어 2003년에는 약 26.2%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 5,721,000명이던 요보호 아동의 수도 2003년에는 10,222,000명으로 거의 배에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1996; 김정우 Henderson, T., 2004에서 재인용). 이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지위구분은 '방입', '혼외출생', '미아', '가출', '빈곤 및 폭행 등'으로 구분(보건복지부, 2004)되어 일반적인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 2) 아동권리에 관한 헌장(Charter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20번 항목은 부모와 분리되어야 하거나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은 국가에 의해 특별한 원조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란 위탁보호, 이슬람세계의 카파라(kafalar of Islamic Law), 입양 등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 양육과 관련한 해결책을 고려할 경우 이 제도들이 반드시 연속성을 가져야 하며 아동의 인종, 종교,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배경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현재 500,000명의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입양이나 위탁보호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04).

II. 이론적 배경

앞서 위탁보호의 유형은 아동과 위탁부모의 관계에 따라 대리양육, 일반위탁, 친인척 위탁 등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주로, 일반 위탁보호를 수행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과 위탁 부모사이에 혈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위탁을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이유에서부터 차이가 날 것이며 위탁을 시작한 이후에도 친부모와의 관계 형성, 아동의 위탁이전 경험에 대한 이해 등 위탁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위탁유형에 따른 비교 연구가 아닌 이상 이들을 같은 분석틀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 위탁아동들의 특수욕구(Special Needs)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위탁부모들이 어떤 아동을 위탁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탁 아동들의 위탁이전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탁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위탁보호의 유형이 어떠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반위탁가정으로 위탁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등으로 인해 부모와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된다. 때문에 모든 위탁아동들이 행동 문제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들 중 친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 등 발달과정에서 행동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상황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Clark & Prange, 1994). 또한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아동들의 '폭력', '비행', '공격성' 등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허남순, 2004; 양심영, 2003).

다시 말해 위탁아동의 경험과 특수욕구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위탁아동들에게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Baum, A. C. et al., 2001). 먼저 학대 경험과 아동의 발달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 아동은 충동적이거나 부당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학습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품행장애 및 약물남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 낮은 자존감, 사회적 부적응, 자살을 비롯한 다양한 행동상의 문제 및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탁아동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탁이전의 경험으로 방임문제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은 불안정한 애착형성을 갖게 되어 불순종적이고 자극에 쉽게 흥분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낮은 자존감, 자신감 부족, 융통성 부족, 자기 통제력 부족, 주의력 장애, 사회적 고립 등도 이들의 성격적 특성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적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살펴보면 우울장애, 품행장애, 신체화 장애, 섭식장애, 학습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서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병원신문, 2006; 한지숙, 2004). 그러나 여기서 위탁아동의 특수욕구란 반드시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행동적, 정서적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위탁아동이 신체적 장애를 가졌다면 위탁부모는 그에 대한 더 상세한 대처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이들을 더 적절하게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 위에서 제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동이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면 이 시기의 주요 발달과제인 사회화와 관련된 욕구의 충족이 위탁부모들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행동 및 발달적 특성이 요구하는 특수욕구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위탁보호의 지속 및 양질의 보호란 보장될 수 없다. 또한 같은 이유로 위탁부모들의 어떤 특성이 이 같은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들을 위탁하게 하는지 혹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Cox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 뿐 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혹은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양육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가 높은 부모일수록 실제로 더 많은 아동을 위탁했으며, 위탁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아동의 수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³⁾. 즉,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가 향후 위탁활용도(utilization)를 예측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위탁부모가 위탁하기를 원하는 아동의 유형과 위탁활용도에 대한 연구에 앞서, 위탁부모들의 위탁의사는 별개

3) 미국의 경우 몇 명을 위탁보호 할 수 있는지가 사전에 '자격(licence)'으로 주어지며, 이에 대한 실제 위탁아동수의 비율을 위탁활용도(utilization)로 개념화하며, 이는 '위탁부모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격을 활용하여 위탁보호를 수행하는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아동의 수 대비 총 위탁아동 수, 현재 위탁하고 있는 아동의 수, 위탁경험 기간, 추가 위탁의사 등의 비율로 측정된다(Cox et. al., 2002). 물론 이 개념은 위탁체계의 상이성 때문에 우리나라 위탁보호에서는 곧바로 사용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일종의 위탁보호의 성과라는 차원에서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 및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먼저 이러한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연구자는 이러한 내용을 개념화 하면서 '위탁성과(outcomes)', '위탁의 효과성(effectiveness)' 등을 모두 고려한 바 있다. 그러나 '성과'라는 개념을 사용할 경우 이것이 위탁보호를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위탁아동이나 위탁부모의 행동적, 심리적 변화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Schmitz, M. F., 2005; Kerman, B. et al., 2005), 효과성 개념을 사용할 경우 이것이 비용대비 산출의 개념을 의미하거나(Alpert, 2005; Litrownik, A. J. et al., 2003), 위탁보호와 관련된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성 개념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특수 욕구(special Needs)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

서론에서 대략 언급한 바와 같이 위탁부모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위탁보호를 실시하는지 여부에는 매우 많은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원이론에 의하면 위탁부모들의 인구사회학적인 자산, 예를 들면 연령, 교육수준, 소득, 혼인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치며(Cox et al., 2002; 2003), 동기이론에 의해서도 위탁부모의 특정 태도가 설명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 여기에 위탁부모가 된다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동기(motivation)이론과 위탁의사

일반적으로 동기라 함은 개인의 활동과 행동의 활발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심리적 작용을 의미하며, 동기에 따라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한 강도(intensity)와 방향(direction)이 결정된다(F. Halisch. & J. Kuhl., 김언주 등 역, 1996). 말하자면 보다 강렬한 활동은 더 높은 수준의 동기에서 나온 결과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 같은 동기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위탁부모들의 적극적인 위탁태도는 위탁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정서·행동적 문제가 있는 아동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는 더 적극적인 동기나 제반여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

동기 이론에 의하면 동기와 행동의 관련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동기의 출처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들은 분석의

차원에 따라 4가지 상이한 차원을 형성하며 각각은 대립적 개념들로 구성된다. 먼저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공통적 혹은 일반적 특성으로서의 동기를 입법적(nomothetic) 동기라 하고, 이와 반대로 개별적이고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는 행동의 동기를 개별적 동기(idiographic motivation)라 한다. 또 동기의 출처가 선천적(innate)이나 혹은 후천적이냐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며, 동기가 개인의 (생물학적)내적 필요(need)에 의한 것인지, 환경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내적(internal)동기와 외적(external)동기로 구분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동기의 발생에 따라 혈당수준, 체액분비 등이 자동적 혹은 기계적으로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의 해석 상태에 따라 변하는지에 따라 기계적(mechanistic)동기와 인지적(cognitive)동기 등으로 구분된다(H. L. Petri, 박소현·김문수 역, 2001).

이러한 동기의 개념과 출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탁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입법적 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위탁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동기 중에서도 그것이 내적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외적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위탁보호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위탁보호에 대한 동기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기계적 동기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기로 한다.

(1) '부모됨'의 동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위탁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친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아동을 양육하거나, 혹은 친자녀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아동을 양육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아동을 중심으로 한 관점이고, 위탁보호당사자의 입장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장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부모됨'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서, 이것이 '위탁부모'들의 동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됨의 동기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자녀의 효용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①자녀와의 애정교류, 성취감 등의 심리적 측면과 ②노동력 확보와 노후안정을 바라는 경제적 측면, ③결혼을 통해 가족관계를 완성하는 등 사회적 단위로서의 지위획득이라는 측면, ④세대간 연대의 측면, 마지막으로 ⑤성인지위로의 영입이라는 의미가 있다(Fawcett, 1988). 그러나 이 같은 부모됨에 대한 동기는 위탁보호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②의 경우에는 위탁보호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비교적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이유로 세대간 연대라는 측면의 동기도 위탁동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위탁부모들이 결혼을 한 상태이고 친 자녀들이 있는 경우라면(김정우, 2006a) ③, ④, ⑤의 동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가 된다는 것을 ①성인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지위확보와 가문계승이라는 사회적 의무충족을 의미하는 전통적 가치 요인과 ②자녀 성장에서 오는 기쁨, 교육과 양육의 보람,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 등의 정서적 가치요인, 마지막으로 ③심신의 피로, 활동의 제약, 양육부담 등을 의미하는 비용요인측면으로 분류한 바 있다(Callan & Gallois, 1983). 그러나 같은 이유로 인해 위탁보호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동기는 ②와 ③정도로 한정된다. 이들을 종합해 볼 때 위탁부모들에게 적용가능한 동기는 '정서적 유대감과 교류의 확보'라는 심리적 측면과 양육부담등과 관련된 '비용요인'측면 정도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미 자신의 친 자녀가 있는 위탁부모들의 동기를 모두 설명할 수 없으므로 위탁부모들이 갖는 독특한 동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위탁 부모됨'의 동기

최근에는 임신과 출산을 개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모가 된다는 것과 그 시기마저 개인의 선택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되었으며 그 의미도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위탁보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1970년대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자국 내에서의 입양이나 위탁보호가 선호되었고 비교적 같은 인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70년부터 85년 사이에는 이러한 태도가 매우 이상적인 형태로 변화하여 아동의 욕구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해외입양이나 위탁이 급격히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1985년 이후에는 다시 해외입양아동의 적응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이 같은 경향에 변화가 생겼다(Tyebjee T., 2003). 이를 근거로 위탁이나 입양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위탁보호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나라 위탁부모들의 동기 및 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향후 위탁보호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탁동기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들이 주로 위탁부모가 되는지에 대해 분석한 Andersson(2001)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주로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친인척이거나,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 혹은 아이가 하나 밖에 없어서 친자녀에게 형제관계를 형성해 주고 싶은 경우였으며,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난 후에 그 공백을 매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심리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위탁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동정심과 같은 이타적 동기보다는 개인의 환경적 필요에 의한 이기적 동기가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Vinterhed(1985)에 의해 수행된 스웨덴 위탁부모에 대한 연구와(Anderson, 2001에서 재인용), Bebbington과 Miles(1990)에 의해 수행된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위탁보호를 수행하는 가정의 여성들이 다른 평균적인 가정보다 기술의 숙련도나 경력의 부족 등으로 비전일제(part-time)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들은 위탁보호가 단순히 동정심이나 심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수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도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것을 위탁부모들의 '숨겨진 동기4)'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경우 경제적 지원제도가 거의 미비한 수준이므로 이를 강조할 수는 없겠지만 위탁부모들의 동기가 아동에 대한 동정적 관심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만은 아닌,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한다는 것이라는 점은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같은 복합적 동기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Baum 등(2001)의 연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위탁부모의 동기에는 아동을 돕는다는 것 자체를 원하기 때문이거나, 지역사회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입양을 고려하는 과정 중에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녀가 사망했거나 분가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종교적 이유에서 등이 보고 되었다. 그리고 동기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위탁부모들의 동기에 따라 이들이 아동과 형성하는 애착관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도 보고된 바 있다 (Susan A., 2005; Ortiz, 2000).

그러므로 위탁부모들의 동기는 일반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 이상의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하는 의사결정과정이며, 여기에는 부모들의 환경적 필요에 의한 동기를 중심으로 하여 아동을 위한다는 의미, 자아실현 등의 동기가 복합적

4) 이 용어는 Bebbington과 Miles(1990)가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위탁부모들은 자신들의 동기를 아동을 위한 매우 이타적인 것으로 밝히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본인들의 조건 때문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역할(Role)이론과 위탁의사

역할이란 사회적 차원에서 기대되는 행동패턴을 의미하며,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리고 그 출처에 따라 인종, 성, 연령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역할(ascribed role)'과 아내, 부모 등과 같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는 역할(achieved role)'로 구분된다(Robbins S. P. et al., 1998).

앞서 동기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된다는 것도 개인에게는 일종의 '의사결정'이며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기대되는 행동패턴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는 부모의 성역할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구분하거나, 비슷한 맥락이지만 부모의 성 역할을 얼마나 전통적인 관점에서 규정하는지 혹은 진보적인 관점에서 구분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자녀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부모의 역할은 온정, 애정, 보육, 수용 등을 의미하는 '지원역할'과 훈육, 행동수정, 지배, 제한, 강제, 권위주장 등을 의미하는 '통제역할'로 구분하기도 한다(유안진·신양재, 1993). 그리고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이 결정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개념은 위탁보호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며, 동시에 위탁부모로서의 역할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탁부모들은 위탁과정에서 아동에게 중요한 타자로 인식되는 사람들과의 협조체계를 형성하여 아동의 '외적체계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거나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개입하여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내적체계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김정우, 2006b), 일반적인 부모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비교했을 때 '통제역할'보다는 '지원역할'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위탁부모들의 보호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제나 행동수정보다는 지원에 비중을 두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Anderson(2001)은 스웨덴에서 위탁보호와 관련된 주된 연구 초점은 위탁부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만 맞추어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위탁부모들은 아동의 감정적 행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동의 원 가족 및 부모들과의 협력, 아동들에게 정상적인 가정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결국, 위탁부모의 역할을 무엇으로 정의하든 중요한 것은

위탁부모들이 그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위탁보호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Pecora, et al., 1999).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위탁부모들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고 이것을 잘 이해할수록 부모들의 위탁경험이 향상되거나 위탁을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낮아지며(Fees & Stockdale, 1998; Pasztor, 1985; Simon & Simon, 1982) 위탁보호에 있어서 위탁부모의 역할은 개인이 이해하고 인지하는 역할에서부터 출발하여 상호 연관된 역할들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Beehr, 1995). 그리고 이것은 다시 위탁보호의 확산, 위탁부모의 모집 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위탁부모가 위탁부모로서의 역할인식을 정확히 할수록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는 차이가 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3) 위탁부모의 사회적지지 체계와 위탁의사

위탁보호에서 위탁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주로 위탁부모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이 때 자원의 개념은 위탁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 등과 관련된 인구학적 자원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위탁부모들이 양질의 보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 욕구(basic needs)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이것들이 부모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욕구(special needs)들과 관련하여 위탁아동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카시트, 교육장비 등의 기구들이 요구되는데 이것 역시도 위탁부모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자원중 하나가 위탁부모들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자원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인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바로 위탁부모들의 사회적 지지체계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자원수준은 위탁부모들이 가지는 사회적 지지체계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나라 일반위탁부모들의 인구학적 수준이 매우 동질적인 특성이 있음을 감안한다면(김정우, 2006a) 위탁부모들의 직접적인 자원수준을 비교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아동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일반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자녀들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없으나 배우자의 지지 정도는 자녀들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위탁 가정에서 부모들이 갖는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좋은 사회적 지지를 갖는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고 위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Orme & Buehler, 2001). 이 밖에 위탁부모의 확대 가족들로부터의 지지, 신앙심, 종교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위탁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연구된 바 있다(Buehler, C. et al., 2000; Le Prohn, 1993).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원의 개념은 단순히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하고 싶은 아동과 자원의 보유상태간의 적합성에 관한 문제인데(Cox et al., 2003), 예를 들어 정서·행동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아동에 비해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이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탁보호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가 높은 부모일수록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부모의 의사가 높을 수 있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탁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4)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 <연구문제1> 일반위탁부모들의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일반위탁부모들의 위탁동기, 역할인식, 사회적 지지체계 수준의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3>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자들은 'H위탁기관(이하 '협회')에서 부모교육을 받은 위탁부모신청자 중 실제로 아동을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서울, 경기, 대구 지역의 위탁부모 총 126명을 조사하였다. 협회의 협조를 얻어 위탁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5) 전국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위탁보호제도의 전달체계와 관련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7개의 가정위탁보호지원센터가 있으나 이 중 3개의 지원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이 때 연구목적을 소개하고 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2달간 이었고, 자료수집방법은 자가 보고식 설문 방법이었다. 최종 72부의 설문지가 위탁부모로부터 회수되었으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71부(56.4%)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제한이 있지만 본 71사례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국가의 공적인 경제적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 자발적 위탁부모들의 50% 이상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으로 일반화되기에 크게 무리가 없다는 점이다.

2. 분석방법

먼저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위탁의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SPSS 12.0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위탁부모들의 동기수준, 사회적 지지체계 수준에 대해서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과 가장 낮은 문항 각각 5개를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특성을 비교적 자세히 이해 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관련된 주제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적이 전혀 없어 탐색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가 많지 않아 제한적인 방법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위탁부모들의 동기는 그 하부 속성을 파악하여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어떤 동기들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변인들이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밖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간 상관관계도 추가적으로 파악하였다.

센터와 중앙센터는 H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센터들은 H재단소속 기관들이다. 이들 운영기관에 따라서 위탁부모들의 특성은 차이가 있는데, H위탁기관에서 대상으로 하는 위탁부모들은 아동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전혀 제공받지 않고 있는데 비해 H재단의 위탁부모들은 소정의 보조금을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에 의해서 이들 간에는 위탁동기 및 부모들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변수정의 및 측정⁶⁾

1)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는 WFS척도(Willingness to Foster Scale)를 활용하였다. 총 80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6이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데 ①위탁아동이 가질 수 있는 정서·행동적 문제 목록(총 50문항), ②신체장애를 비롯한 더 많은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목록(총 19문항), ③아동의 연령 및 성별과 관련된 목록(성별에 따라 각각 5세 미만과 5세 이상을 구분, 총 7문항), ④문화 및 인종에 의한 목록(총 4문항) 등이다. 각각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탁부모들의 위탁의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4가지 하부요인들은 독립적인 변수로 활용가능하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문화 및 인종에 관한 구분을 제외하고 이상의 3가지 차원을 구분하여 전체 연구의 종속 변수로 활용하였다.

2) 위탁부모의 위탁동기

위탁부모의 위탁 동기는 RF(Reason to Fostering)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위탁부모가 되기로 결심한 동기를 유형화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각각의 문항들은 위탁부모가 되기로 한 각기 다른 동기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위탁부모들의 동기에 대해 이론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RF척도는 구성개념을 중심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들에 제시된 위탁동기들을 목록화 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위탁부모들이 어떤 동기를 가졌는지에 따라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요인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위탁부모들의 동기를 탐색적으로 개념화하였다.

3) 위탁부모의 역할인식

본 연구에서 위탁부모의 역할인식은 Le Prohn(1993)이

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 중 위탁부모의 '역할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척도들은 John G. Orme, May Ellen Cox, Kathryn W. Rhodes, Tanya M. Coakley, Gary S. Cuddeback와 Cheryl Buehler(2003) 등이 Casey program에서 위탁가정을 사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Casey home assessment protocol)를 개발하면서 사용한 척도들이다.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내용은 해당 매뉴얼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개발한 FPRP(Foster Parents Role Perception)척도를 토대로 위탁부모의 역할을 개념화한 김정우(2006b)의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탁부모의 역할은 ①아동의 '외적체계에 대한 지원역할'과 ②아동의 '내적체계에 대한 지원'으로 개념화되며, 각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역할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28과 .890으로 나타난 바 있다.

4) 위탁부모의 지지체계

HFI(Help with Fostering Inventory)척도는 위탁부모들이 실제 위탁보호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이 척도는 ①종교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의 도움(worship group), ②전문가들로부터의 도움, ③자신의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각 하부요인들은 독립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어떤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별 지지체계들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27개 문항(28번 문항은 주관식 문항이므로 이는 제외하였다)에 대한 총점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위탁부모의 개인적(인구사회학적)특성⁷⁾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위탁부모의 연령은 각각 연속변수의 형태로 조사되었고 이것을 범주화하여 빈도를 제시하였다. 교육수준 역시 각각 연속변수의 형태로 조사하여 이것을 범주화 하였다. 다음으로 위탁부와 위탁모의 혼인상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4개의 범주로 조사되었고 가구소득은 연속변수로 측정할 경우 무응답 할 가능성이 높아 50만원 단위의 범주형태로 측정한 이후에 위 표에서는 구간을 100만원 단위로 조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주거유형변수 역시 범주형태로 측정되

7) 본 연구에서는 위탁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위탁부모의 특성과 위탁부의 특성을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아동의 위탁보호는 부부 중 1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료를 수집할 때 이를 고려하여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모두 조사에 포함시켰으나 다른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은 부부가 상의 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치

N=71

항목	문항내용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위탁부 연령	30세 이상~39세 미만	7	9.9	47.49	5.52
	40세 이상~49세 미만	39	54.9		
	50세 이상~59세 미만	23	32.4		
	60세 이상	2	2.8		
위탁부 교육수준	초졸	1	1.4	15.94	2.08
	중졸	0	0		
	고졸	8	11.3		
	대졸	43	60.6		
	대학원졸	19	26.8		
위탁모 연령	30세 이상~39세 미만	16	22.5	44.26	5.49
	40세 이상~49세 미만	42	59.2		
	50세 이상~59세 미만	13	18.3		
위탁모 교육수준	초졸	0	0	14.44	2.20
	중졸	1	1.4		
	고졸	27	38.0		
	대졸	38	53.5		
	대학원졸	5	7.0		
혼인상태	기혼(전처나 전남편의 자녀가 없음)	53	74.6		
	기혼(전처나 전남편의 자녀가 있음)	10	14.1		
	동거	1	1.4		
	사별	1	1.4		
가구 총 소득	100만원 미만	5	7.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5	21.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2	4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6	22.6		
	400만원 이상	13	16.3		
주거유형	자가	44	62.0		
	전세	11	15.5		
	월세	3	4.2		
	기타	9	12.7		

었다. <표 1>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반위탁부모들의 평균 연령은 40대 이상이며, 평균교육수준이 대학졸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은 도시근로자 평균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특성이 있어 인구학적으로는 매우 동질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⁸⁾.

2.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

본 연구는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가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전혀 수행된 적이 없

으므로 탐색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관련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서는 위탁아동의 정서·행동적 문제, 장애, 성별 및 연령과 관련하여 위탁부모들의 위탁의사가 높은 유형과 낮은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2>에 제시된 항목들은 위탁아동들이 가질 수 있는 정서·행동적 문제와 관련된 행동목록 총 50문항 중 상, 하위 각 5개 문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체로 의기소침하며 내성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위탁할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불을 지르거나 폭력적인 행동특성을 가진 아동, 자해를 하는 아동과 관련되어서는 평균이 1.5에서 1.69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8) 우리나라 일반 위탁부모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은 김정우(2006a)를 참조하기 바란다.

어떠한 지원책이 주어지더라도 위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에서의 연구결과와도 매우 유사한데 미국의 위탁부모들도 '불을 지르는 아이'를 가장 꺼렸으며 나머지 결과들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Cox et. al, 2003).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결과가 상식적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50문항에 대한 관대함 정도가 위탁부모들의 위탁의사와 관련된 태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Cox 등(2003) 연구에 의하면 위탁부모가 이러한 아동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위

탁에 더 호의적일 수록 위탁부모들이 14개월 후에 실제로 아동을 위탁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표 4>는 정서·행동적 문제보다는 더 많은 욕구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위탁의사를 제시하고 있다.

<표 3>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적용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AIDS에 감염된 아동, 간질, 다운증후군, 당뇨병 등 임상적으로 확연히 구별 가능한 문제를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위탁하겠다는 의사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 역시도 위탁부모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흥

<표 2> 정서·행동적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

N=71

구분	순위	문항	내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위탁의사 높음	1	wfs29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한 아이	1	4	3.32	.770
	2	wfs34	어리광을 부리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아이	1	4	3.31	.785
	3	wfs23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	1	4	3.28	.796
	4	wfs17	매우 의기소침한 아이	1	4	3.24	.801
	5	wfs45	식사예절이 형편없는 아이	1	4	3.23	.882
위탁의사 낮음	1	wfs28	불을 지르는 아이	1	4	1.55	.842
	2	wfs39	조직폭력배와 어울리는 아이	1	4	1.61	.870
	3	wfs02	자살기도를 하거나 자해를 하는 아이	1	4	1.66	.894
	4	wfs44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거나 자해를 하는 아이	1	4	1.69	.872
	5	wfs27	약물이나 술을 마시는 아이	1	4	1.69	.888

<표 3>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

N=71

구분	순위	문항	내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위탁의사 높음	1	wfc03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	1	4	2.80	.856
	2	wfc04	매우 허약한 아이	1	4	2.77	.913
	3	wfc12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이	1	4	2.69	.904
	4	wfc13	건강하지 못하고 자주 아픈 아이	1	4	2.61	.886
	5	wfc01	정서적 장애가 있는 아이	1	4	2.44	1.010
위탁의사 낮음	1	wfc02	에이즈에 걸린 아이	1	4	1.25	.579
	2	wfc10	간질이 있는 아이	1	4	1.70	.763
	3	wfc18	다운증후군인 아이	1	4	1.90	.831
	4	wfc09	당뇨병이 있는 아이	1	4	2.00	.793
	5	wfc19	임신한 아이	1	4	2.01	1.021

<표 4>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위탁의사

N=71

순위	문항	내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wff02	여아 5세 미만	1	4	2.98	1.038
2	wff04	여아 12세 미만	1	4	2.92	1.005
3	wff03	남아 5세 미만	1	4	2.84	1.098
4	wff05	남아 12세 미만	1	4	2.62	1.084
5	wff06	여아 1 8세 미만	1	4	2.23	1.042

미로운 것은 외국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위탁의사가 낮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치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0년에 국내에 입양된 아동 중 비장애 아동은 1,668명 이었으나 장애아동은 18명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경우 비장애 아동이 1,726명이었고 장애아동은 634명으로 나타나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태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수치는 입양에 관한 것이지만 입양보다는 위탁보호가 위탁부모들의 부담이 더 적음에도 이 같은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최근에도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다음으로 우리나라 위탁부모들이 위탁하기를 원하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에 따르면 남아보다는 여아를 선호하며 동일한 성별일 경우 연령이 더 어린 경우를 선호하였다. 이 결과와 관련해서는 Orme 등(2003)등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이 5세 이상인 경우와 정서·행동적 문제가 있는 아동 혹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세 미만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만 관련이 있었다. 이는 위탁부모들이 5세 미만아동에게서는 아직 문제행동이 성격으로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장애는 5세 미만이라도 관찰로 드러날 수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음).

이 밖에 위탁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결정짓는 것은 친자녀의 연령 및 성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친자녀가 이미 독립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면 위탁하는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에는 특별한 제약이 주어지지 않

겠지만 자신의 친자녀와 위탁아동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라면 위탁아동의 연령과 성별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특수한 육구를 가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그 관련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밝혀진 바 없으므로 이는 후속연구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3. 위탁부모들의 동기에 관한 특성

<표 5>에서 일반위탁부모들의 동기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것은 상위 5가지 문항이 모두 아동을 중심에 두고 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동기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들의 육구가 중심이 되는 동기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의 위탁보호제도 자체가 초기라는 점과 이들이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탁부모들이 갖는 강한 동기와 그렇지 않은 동기가 구별된다는 것은 이것이 특수한 육구를 갖고 있는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일반위탁부모들이 갖는 동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으며, 이것들이 선행연구들과 가지는 독특성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전체 33문항으로 구성된 RF(Reason to Fostering)척도를 이용하였는데, 사례 수가 71개 이므로 이들을 한꺼번에 요인분석하기에는 1개 문항 당 관찰수효가 5배 이상이어야 하는 전제를 충족하

<표 5> 위탁부모들의 위탁동기

N=71

구분	순위	문항	내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높은 위탁 동기	1	ref17	아이들은 시설보다는 집에서 보살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1	5	4.49	.734
	2	ref13	위탁한 아이에게 좋은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싶다.	1	5	4.37	.741
	3	ref26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싶다.	3	5	4.34	.584
	4	ref29	내가 만나게 될 아이에게 가정을 제공하고 싶다.	3	5	4.31	.575
	5	ref11	아이를 위탁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보살핌을 주고 싶다.	2	5	4.27	.632
낮은 위탁 동기	1	ref25	나 역시 수양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하였다.	1	4	1.18	.543
	2	ref14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	1	5	1.28	.759
	3	ref26	어린시절 학대당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양부모가 되어서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다.	1	4	1.32	.713
	4	ref08	내가 혼자라서 겪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음	1	5	1.61	.870
	5	ref19	수양부모가 되면 어느 정도의 일정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5	1.62	.900

지 못하므로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KMO(Kaiser-Meyer-Olkin)값은 .650이었으며 $X^2=486.035$, $df=231$, $p<.000$ 로 나타나 Bartlett 검정결과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체적인 요인분석의 방법으로는 주축요인분석법과 사각회전(oblimin)법을 사용하였으며 33문항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735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의 위탁 동기는 <표 6>과 같으며 각각의 동기는 ①아동 중심의 이타적 동기요인, ②위탁부모 중심의 이기적 동기요인, ③입양을 위한 사전 경험 요인, ④위탁부모의 개인적 경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아동 중심의 이타적 동기'에는 아동에 대한 동정심을 중심으로 아동에게 더 좋은 환경과 사랑을 제공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 지역사회를 위한다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위탁부모나 아동을 돕고 싶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위탁 부모 중심의 이기적 동기'는 친자녀에게 형제를 만들어 주고 싶다

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던가 하는 환경적 필요에 의한 요인과 위탁한 아동과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욕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유에서건 부모역할(parenting)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모 중심의 욕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입양에 대한 사전경험'요인이란 입양을 고려해보고는 싶지만 아직 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위탁부모 개인이 과거에 특정한 경험을 했다면 이 경험과 관련하여 특별한 동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요인들이 위탁부모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입법적 동기에 대한 내용들이라면, 동시에 이 동기들의 출처에 따라 개인의 심리내적 작용에 의한 내적동기와 환경적 필요에 의한 외적동기인지를 구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아동중심의 이타적 동기'는 동정심이 중심이 된다는 차원에서 내적동기로, '부모중심의 이기적 동기'는 환경적 결핍을 보완하려는 외적동기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구의 사례가 제한되어있으므로 이러한

<표 6> 위탁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N=71

요인	문항	1	2	3	4	공통성
아동 중심의 이타적 동기	위탁한 아이에게 좋은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싶다.	.659				.467
	평범하지 못한 가정의 아이를 돕고 싶다.	.696				.630
	아이에게 가정을 제공하고 싶다.	.799				.679
	딱한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	.624				.526
	위탁아동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주고 싶다.	.563				.489
	아이들은 시설보다는 집에서 키워야한다.	.529				.383
	주위에 알고 있는 수양부모나 아이들을 돕고 싶다.	.394				.518
	딱한 아이를 보면 동정심이 생긴다.	.447				.453
	지역공동체를 위해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	.381				.314
부모 중심의 이기적 동기	혼자라서 겪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643			.479
	위탁한 아이를 통해서 사랑 받고 싶다.		.633			.490
	친자녀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532			.405
	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07			.409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 원한다.		.427			.337
	수양부모가 되고 싶은 아이가 있다.		.404			.483
	여유 있는 시간을 좋은 일에 투자하고 싶다.		.348			.418
불임 등으로 아이가 없다.		.340			.406	
입양을 위한 사전 경험	아이를 기르고 싶지만 오랫동안은 자신 없다.			.856		.557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끝까지 책임지기는 어렵다.			.727		.466
	입양하기를 원하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440		.374
개인의 과거경험	나도 수양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했다.				.688	.376
	어린시절학대경험으로 이제는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				.505	.617
신뢰도		.788	.692	.708	.626	-
			.701			-
설명된 총 분산				48.825		

해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그리고 후속연구의 과제를 제시 한다는 차원으로만 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탁부모들의 동기에는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가정은 요인분석결과와 함께 선행연구결과들에 의해서도 지지 된다(Susan A., 2005; Baum, A. C. et al., 2001; Ortiz, 2000).

4. 위탁부모들의 역할인식 특성

본 연구에서 위탁부모들의 역할인식은 종속변수로 사용된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분석에 포함되었지만 변수의 구성과정은 김정우(2006b)의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위탁부모가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역할을 요인분석을 통해 개념화 한 결과 우리나라 위탁부모들은 아동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사, 사회복지 전문가, 의사 등과의 관계 조정 및 협의를 통한 '아동의 외적체계에 대한 지원', 아동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거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의 내적체계에 대한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5. 위탁부모들의 사회적 지지체계 특성

위탁부모들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①지역의 청소년단체, ②전문가 집단, ③친인척, ④종교단체, ⑤기타 편의시설 제공자(공부방이나 놀이방제공, 교통편이 및 휴양시설제공 등)등으로 구분되어 Orme 등(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요인분석결과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연구대상자들이 주로 갖는 지지체계의 특

성과 거의 지지받지 못하는 지지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의 결과는 우리나라 위탁보호 전달체계와 관련된 특성을 잘 반영한다 할 수 있다. 먼저 이들이 일반위탁부모들인 관계로 자신의 친자녀들을 제외하고는 친인척 등의 확대가족에게서 얻는 지지 정도는 매우 낮은 특성이 있었다. 동시에 위탁보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탁기관을 제외하고는 지지를 제공받는 출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대가족들의 지원이 위탁가족의 적응과 위탁부모의 재위탁의사(retention)를 향상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Rhodes et al., 2001) 위탁부모들의 스트레스(부담)는 고스란히 위탁부모들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탁부모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자신의 친자녀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이 거의 유일함에도 아직 위탁기관들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김정우, 2006b)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출처로 지목되는 종교단체나 이웃들의 도움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보호가 철저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상에서 일반위탁부모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동기, 역할인식, 사회적지지체계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먼저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먼저 분석에 사용될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를 중심으

<표 7> 위탁부모들의 사회적 지지체계

N=71

구분	순위	문항	내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높은 지지체계 출처	1	hfi04	친자식	1	5	4.27	.956
	2	hfi19	수양보호협회	1	5	4.00	.910
	3	hfi20	사회복지사	1	5	3.69	1.050
	4	hfi25	다른 수양부모들	1	5	3.54	1.067
	5	hfi23	전문가	1	5	3.52	1.286
낮은 지지체계 출처	1	hfi14	지역의 청소년 단체	1	5	2.23	1.124
	2	hfi13	청소년끼리 모인 회원	1	5	2.24	1.114
	3	hfi04	친척	1	5	2.32	1.240
	4	hfi12	교회나 절 성당의 중고등부	1	5	2.44	1.079
	5	hif02	친인척	1	5	2.58	1.272

<표 8>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의 위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상관관계

N=71

구분	아동중심의 이타적동기	부모중심의 이기적동기	입양에 대한 경험	개인의 과거 경험	아동외적 체계지원	아동내적 체계지원	위탁부모의 자원	정서행동 문제아동 위탁의사	장애아동 위탁의사
아동중심의 이타적동기	1								
부모중심의 이기적동기	.075	1							
입양에 대한 경험	-.039	.037	1						
개인의 과거 경험	.004	.171	.088	1					
아동외적체계지원	.284*	-.172	.144	-.121	1				
아동내적체계지원	.274*	-.242*	-.095	-.331**	.613**	1			
위탁부모의 자원	.091	.213	-.082	.102	.198	-.028	1		
정서행동문제아동 위탁의사	.292*	.366**	-.122	-.014	-.148	-.148	.218	1	
장애아동 위탁의사	.169	.393**	-.135	.021	-.191	-.179	.303*	.795**	1

p* $<$.05, p** $<$.01

<표 9>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71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6.603	46.466		.788	.434	
위탁부모의 동기	아동중심의 이타적 동기	2.784	1.033	.311	2.695	.009**
	부모중심의 이기적 동기	1.599	.683	.274	2.340	.023*
	입양에 대한 사전 경험	-.972	1.401	-.081	-.694	.490
	부모의 개인적 경험	-3.783	3.519	-.126	-1.075	.287
위탁부모의 역할인식	아동외적체계지원	-.531	.515	-.158	-1.031	.306
	아동내적체계지원	-1.096	1.634	-.103	-.671	.505
위탁부모의 지지체계	.289	.208	.165	1.388	.170	

R²=.277 / F=3.342** / n=71

p* $<$.05, p** $<$.01

로 살펴보면 계수들의 크기가 .8미만 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우려되지는 않는다. 다만, 역할인식수준과 위탁동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이 관찰되었으므로 동기수준과 역할인식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정서·행동적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와 위탁부모의 이타적 동기 및 이기적 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는 위탁부모의 이기적 동기와 사회적 지지체계수준이 관련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위탁부모들이 위탁하기를 원하는 아동의 특성은 위탁동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으며, 탐색적 차원의 본 연구 외에 관련 후속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

<표 9>에 의하면 정서·행동적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위탁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동

을 중심으로 하는 이타적 동기와 부모중심의 이기적 동기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중심의 이타적 동기의 베타값이 .311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귀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통계적 유의성 외에 계수들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모형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4가지 위탁동기의 하부요인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2개 변

9) 본 연구의 사례수가 총 71이므로 회귀분석을 위한 관찰수효는 최소 10개를 초과하여야 한다. 독립변수로 활용되는 변수가 총 7개 이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시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요건일 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위탁보호가 초기단계임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탐색적으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는 양의 계수값을 가지는 반면 입양에 대한 사전경험 차원과 위탁부모의 개인적 경험의 경우 음의 계수값을 가진다. 즉, 통계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위탁부모들이 입양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시험 삼아 위탁보호를 수행하거나, 아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싶지는 않지만 아동을 키워보고 싶은 생각에서 위탁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경우 아동의 정서·행동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오티즈(Ortiz, 2000)가 수행한 위탁부모의 동기와 위탁에 대한 만족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위탁부모들의 동기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①자신의 친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②위탁되는 아동을 돕고자, ③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 ④입양을 원해서라는 동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족구성원에게 도움이 되고자' 위탁을 시작한 경우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입양을 염두에 둔 위탁'은 향후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을 권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위탁부모교육 중에 증도하차할 가능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위탁동기의 유형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견해는 이 분석결과와 선행 연구들의 지지를 받는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탁부모의 역할인식과 관련해서는 역할인식의 정도와 정서·행동적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간의 관계가 부적(negative)인 것이 특이하다.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단순히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부모의 역할인식에 관한 이론검토의 문제로 보인다. 즉, 김정우(2006b)의 연구에서 아동의 내적체계에 대한 지원역할을 잘 인식한 위탁부모일수록 '재 위탁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 '역할인식'과 '양육 부담감'의 문제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

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이 곧 본 연구의 한계점과도 관련됨을 밝힌다.

3)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

<표 10>에 의하면 위탁부모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이기적 동기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통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적 지지체계보다 위탁부모 중심의 이기적 동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연구자가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일반적으로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보다는 장애아동을 위탁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경제적 차원의 비용 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을 포함한 비용을 의미함)이 소요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타적 동기'보다 '이기적 동기'가 이러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탁하게 하는 더 강한 동기라는 결론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도 이론적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이지만 아직 위탁부모의 동기에 관한 이론들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정황근거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위탁가족의 특성과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위탁간의 관계를 분석한 오름과 뷔러(Orme & Buehler,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이 성공적으로 위탁되기 위해서는 위탁부모의 역할, 양육방법, 위탁부모의 이력, 위탁준비 정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데 그 중에서도 '아동을 돌보고 싶다는 동기'를 가지는 것은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는 더 부적절한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바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오티즈(Ortiz, 2000)의 연구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위탁을 할 경우

<표 10>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71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9.827	14.598		1.358	.179	
위탁부모의 동기	아동중심의 이타적 동기	.581	.335	.197	1.736	.087
	부모중심의 이기적 동기	.571	.226	.289	2.527	.014*
	입양에 대한 사전 경험	-.339	.457	-.084	-.743	.460
	부모의 개인적 경험	-.989	1.167	-.097	-.848	.400
위탁부모의 역할인식	아동외적체계지원	-.235	.169	-.208	-1.391	.169
	아동내적체계지원	-.237	.525	-.068	-.452	.653
위탁부모의 지지체계	.158	.069	.266	2.302	.025*	

$R^2 = .289 / F = 3.6532^{**} / n = 71$

$p < .05, p^{**} < .01$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위탁부모의 동기 내부에도 동기의 강도에 위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앤더슨(Anderson, 2001)이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위탁부모들의 '숨은 동기'를 언급하고 있어 위탁부모의 이기적 동기가 특수육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위탁부모들이 갖는 사회적 지지체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앞서 우리는 우리나라 위탁부모들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매우 제한적임이며 이는 위탁부모들의 친 자녀나 위탁기관 외에 특별한 지원체계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을 위탁하는 데는 이들의 지지나 원조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의 역할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위탁부모들의 동료집단을 포함하여 지지체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어떤 위탁부모들이 위탁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성공적인 위탁보호에 이바지하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문헌 연구를 통해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혹은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특수육구(special needs)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가 높은 부모일수록 더 적극적인 위탁부모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Cox et. al., 2003; Cox et. al, 2002). 그러나 이들 연구는 경험적 현상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관계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특수육구를 가진 아동을 위탁하거나, 더 적극적인 위탁보호를 하는 것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위탁아동들이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특수육구란 무엇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분석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탁아동이 갖는 특수육구란 이들이 위탁보호 되기 전에 경험하는 환경의 영향에 의해 갖게 되는 정서·행동적 문제들을 포함하여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성별, 연령 등 발달과정상 갖게 되는 특성으로서 위탁부모 입장에서는 양육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위탁보호를 위해서 부모들은 이들의 상황적 '특수육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다.

구체적으로 위탁아동들의 '특수육구'와 관련해서는 정서·행동적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부끄러움이 많고 의기소침한 문제에서 부터 불을 지르거나 조직폭력배와 어울리는 것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수준이었으며 그 문제행동의 사회적 영향력(혹은 위험성)에 따라 부모들의 위탁의사는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위탁아동이 갖는 장애의 유형과 이에 대한 반응도 매우 다양했는데, 상대적으로 학습장애, 정서장애,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등과 같이 장애로 인한 문제가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적 위탁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에이즈(우리나라의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간질, 다운증후군 등 외부로 드러나는 장애일 경우에는 위탁의사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발달수준과 관련하여 연령을 기준으로 5세 미만 아동을, 성별을 기준으로 여아에 대한 위탁의사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특수육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위탁부모가 갖는 동기, 역할인식, 사회적 지지체계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위탁부모의 동기를 분석한 결과 아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신이 위탁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했거나 자녀의 사망, 위탁보호가 경제적 도움이 되는 경우 등 자신의 환경적 필요에 의한 동기는 비교적 덜 강하게 갖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 위탁동기가 어떤 하부구조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탁부모들이 갖는 동기는 ①아동 중심의 이타적 동기, ②부모 중심의 이기적 동기, ③입양에 대한 경험, ④부모의 개인적인 경험 등 4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일반위탁부모들이 갖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수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체계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성공적인 위탁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위탁부모들의 지지체계수준은 자신의 친자녀나 위탁기관 정도만 활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제한적인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수육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상과 같은 특성을 파악한 후에 이들 요인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는 위탁부모의 이타적, 이기적 동기가 모두 영향을 미쳤으나, 상대적으로 더 많은 특수육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에는 위탁부모의

이기적 동기와 함께 사회적 지지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위탁부모들이 아동을 중심으로 한 이타적 동기를 강하게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이 분석결과는 위탁부모의 동기 내부에서도 더 강한 동기와 상대적으로 덜 강한 동기가 구분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위탁부모들은 그들의 동기를 아동중심의 이타적인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위탁부모의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탁보호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탁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탁부모의 동정심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동기를 강화시키는 전략 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위탁보호를 수행하는 환경적 요구를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동기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정지원 확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 동기는 '나쁜 동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정심 혹은 심리적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 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동기가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위탁보호나 입양이 매우 저조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숨겨진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선발하는데도 중요한 개입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방법론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앞서서도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는 본 연구가 탐색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나 관련이론들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에 제시된 변인들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사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특히 위탁동기의 하부구조를 파악하고 아동에 대한 위탁의사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표본수를 확대한 후속연구에서 위탁부모의 동기와 위탁에 대한 태도(의사) 그리고 실제적인 위탁활용도(utilization)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국내 위탁보호활성화에 더 의미 있는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접수일 : 2006년 07월 12일
- 심사일 : 2006년 07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0월 19일

【참 고 문 헌】

김정우a(2006). 일반위탁보호를 수행하는 부모의 특성과 역할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H 위탁보호 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1), 87-113.

_____b(2006). 일반위탁부모의 위탁유지 의사에 관한 탐색적 연구: H위탁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03-116.

김정우 · Henderson, T.(2004). 한국의 위탁 보호에 관한 초기연구: 현 경향 및 쟁점 요약,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양심영(2003).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 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 131-148.

유안진 · 신양재(1993).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와 부모역할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5.

이기정(199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와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송이(1999). 가정위탁보호 양육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2), 43-62.

병원신문(2006). <http://news.kha.or.kr/inews/>. (2006. 5. 17)

보건복지부(2004). 보건복지 통계연보. <http://www.mohw.go.kr/services/service.jsp?itn=tbddata&sa>

전재일 · 박영준(2002). 가정위탁보호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8(1), 81-103.

한국복지재단(2003). 가정위탁지원사업 업무 매뉴얼.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한지숙(2004). 피학대아동의 가정복귀후 심리행동적 적응 요인.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남순a(2004). 한국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과 법률제정의 필요성. 가정위탁 지원 법률제정을 위한 설명회 자료. H위탁기관.

_____b(2004). 친인척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이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243-270.

H. L. Petri(2001). *동기: 이론, 연구, 그리고 활용*. 시그마프레스. 박소현, 김문수 역.

F. Halisch. & J. Kuhl(1996). *동기이론*. 문음사. 김언주, 한순미, 강혜원 공역.

Alpert, L. T.(2005). Parents' Service experience - A missing element in research on foster care case outcomes.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0(4), 361-366.

Anderson, G.(2001). The motives of foster parents, their family and work circumstances. *British Journal of*

- Social Work*, 31(2), 235-248.
- Baum, A. C., Crase S. J. & Crase K. L.(2001). Influences on the decision to become or not become a foster paren, *Families in Society*, 82(2), 202-213.
- Bebbington, A. & J. Miles.(1990). The supply of foster families for children in car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0, 283-307.
- Beehr, T.(1995). *Psychological stress in the workplace*. New York: Routledge.
- Berrick, J. & R. Barth(1994). Reasearch on Kinship Foster Care: What do we Know: Where do we go from he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
- Buehler, C., J. G. Orme, J. Post & D. A. Patterson(2000). The Long-Term Correlates of Family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22(8), 595-625.
- Callan, V. J. & C. Gallois(1983). Perceptions about having children: are daughters different from their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607-612.
- Clark, Prange(1994). Improving adjustment outcomes for foster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 early findings from a controlled study on individualized servic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4), 207-222.
- Cox, M. E., J. G. Orme & K. W. Rhodes(2003). Willingness to Foster Children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roblem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9(4), 23-51.
- _____ (2002). Willingness to Foster Special Needs Children and Foster Family Utiliz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24(5), 293-317.
- Fawcett, J. T.(1988). The value of children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riage and Family Review*, 12, 12-34.
- Fees, B. S., Stockdale, D. F., Crase, S. J., Riggins-Casper, K., Yates, A. M., Lekies, K. S. & Gillis-Arnold, R. (1998). Satisfaction with foster parenting: Assesment one year after train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 347-363.
- Girgis, J.(1999). *Factors that Correlate with Successful Foster Child Placement*.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Master of Social Work. Department of Social Work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 Greef, Roger(1999). *Fostering Kinship: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kinship foster care*. Aldershot, Ashgate.
- Gries, L. T.(1986). The Use of Multiple Goals in the Treatment of Foster Children With Emotional Disorder. *Professional Psycholog: Research and Practice*, 17(5), 381-390.
- Iglehart, A.(1994). Kinship Foster Care: Placement, Service, and Outcome Issu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 107-122.
- Kerman, B., J. Wildfire & R. P. Barth(2002). Outcomes for young adults who experienced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4(5), 319-344.
- Litrownik, A. J., Newton, R. & Mitchell, B. E.(2003). Long-Term Follow-up of young children placed in Foster Care: Subsequent Placements an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1), 19-28.
- Orme, J. G. & Buehler, C.(2001). Foster Family 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of Foster Children: A Narrative Review. *Family Relations*, 50(1), 3-15.
- Orme, J. G., M. E. Cox, K. W. Rhodes, T. M. Coakley, G. S. Cuddeback & C. Buehler(2003). *The Casey Home Assessment Protocol (CHAP) Technical manual*. The University of Tennessee Family Foster Care Project.
- Ortiz, J.(2000).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Foster Parents*. Dissertation of Ph. D., University of Kansas.
- Pasztor, E. M.(1985). Permanency planning and foster parenting: Implications for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and reten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 191-205.
- Pecora P. J., Le Prohn N. S. & Nasuti J. J.(1999). Role perceptions of Kinship and other foster parents in family foster care. *Kinship Foster Car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edited by Hegar R. L., Scannapieco M. Oxford university press.
- Robbins, S. P., Chaterjee, P. & Canda, E. R.(1998). *Contemporary Human Behavior Theory : A critical perspective fo social work*. Allyn and Bacon
- Simon, R. D. & Simon, D. K.(1982). The effect of foster parent selection and training on service delivery. *Child Welfare*, 61(8), 515-524.
- Susan, A.(2005). Foster Caregiver Motivation and Infant Attachment : Hou do Reasons for Fostering Affect

Relationship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2(5), 441-457.

Timmer, S. G.(2006). Challenging foster caregiver-mal-treated child relationship: The effectiveness of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 1-19.

Tyebjee, T.(2003). Attitude, Interest and Motivation for Adoption and Foster Care.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685-706.